‘코로나 특수’ 中, 무역흑자 사상최대… 올 전망은 ‘암울’

차이나 뉴스&리포트

작년 흑자 26% 증가 6760억 달러
‘무역갈등’ 대미흑자 3979억 달러

“올 불확실성 등 3중 압력 직면
신규 수출 모멘텀 완화 예상”

작년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29.9% 급증했다. /AFP·SCMP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특수’로 수출이 호황을 누린 덕분이다.

다만 800조원에 달하는 무역 흑자에도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올해 전망이 어두워지면서다. 실질 수출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울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16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6760억 달러(한화 약 804조원)로 전년 대비 26% 급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무역 갈등에도 대미 흑자가 3970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작년 수출 규모는 3조3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나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2020년 3.6%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 가동이 원활치 못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강력한 봉쇄 조치 등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주문이 몰렸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T중문망에 “지난해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외부 수요”라며 “수출 호황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부진을 상쇄해 중국 경제 둔화를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작년 수입 규모는 2조68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2020년 수입 증가율은 -1.1%였다.

문제는 올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코로나 특수 효과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치솟는 운송료, 공급망 악화 등도 악재다.

해관총서 리쿠이원 대변인은 “올해는 대외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시장 전망 약화라는 삼중 압력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수출 성장세는 이미 둔화됐다. 수출 증가율은 작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정점을 찍었으며, 12월에는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20%에 그쳤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무라의 루 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의 실질 수출 증가율이 0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고, 먹는 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률 향상 등으로 해외 소비가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루이 쿠지스 이코노미스트는 “신규 수출 주문이 줄고, 해외 수요 성장이 작년을 정점으로 둔화되면서 2022년에는 수출 모멘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반스 프리차드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달 수출이 여전히 강하기는 했지만 봉쇄 등으로 항만 운영에 차질이 빚으면서 약화될 수 있다”며 “수입도 부동산 등 중국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전통시장 설 상차림비, 마트보다 20% 저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비용 조사
6~7인 기준 전통시장은 21만원 대
대형마트 27만원… 전년비 2.6%↑
가락몰 구매비용 전통시장보다 저렴

서울 전통시장의 설 상차림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약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시장 가락몰 등 22곳을 대상으로 6~7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36개 성수품목) 구매 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21만4753원으로, 대형마트 26만8549원보다 약 20% 저렴했다.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년 대비 각각 1.7%, 2.6% 올랐다.

가락시장에 위치해 원가가 저렴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0만8875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3%, 22%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3~4인용 소규모 차례상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통시장은 13만원, 대형마트는 16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축산류(쇠고기, 돼지고기), 나물류(고사리, 도라지)의 가격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과일류(사과, 배)와 일부 채소류(대파, 애호박)의 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1%, 무·배추는 6%, 쇠고기·돼지고기·육계 등 축산류는 24%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쌀이나 일부 가공품(밀가루 등)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다.

공사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 특성을 감안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에 주요 소비품목 가격 및 거래동향을 명절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유가증권시장 공시유형별 공시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공시유형				합 계	1사당 평균*	영문공시
	수시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포괄공시						법인수
’20년	13,355	1,165	1,743	76	16,339	20.4	770
	491						82
’21년	15,246	1,720	1,930	49	18,945	23.0	1,600
	530						113
증감(률)	1,891(14.2)	555 (47.6)	187 (10.7)	△27 (△35.5)	2,606 (16.0)	2.6 (12.7)	830(107.8)
	39(7.9)						31(37.8)

* 연말 상장법인수 기준(‘20년 800사, ’21년 824사) /자료=한국거래소

작년 유가증권 공시 1만8945건, 16%↑

KRX, 자율공시 1720건 48% 증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적극 대응으로 공시 건수가 2020년과 비교해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공시와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공정 공시법인 지정 건수 역시 소폭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824개사의 전체 공시 건수는 1만8945건으로 전년 대비 2606건(1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시 유형은 자율공시였다.

공시 유형별로는 수시공시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만526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로 상장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1841건)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610건) 등 기업 투자활동과 관련한 공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공시는 1720건으로 47.6% 증가했다. 풍문,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명공시가 192건으로 134.2% 증가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96건으로 2배(100%) 늘었다. 이 밖에 공정공시(1930건)는 기업 영업잠정실적 공시 및 전망·예측 공시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영문공시(1600건)는 거래소가 상장법인 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한 것에 힘입어 같은 기간 2배 넘게 늘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TCSM-인텔, 2나노 경쟁 점화

〉〉 1면 ‘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서 계속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칫 3나노 미만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에 기술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TSMC가 2나노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2025년 양산을 목표로 대만 타이중시에 새로운 팹을 건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도 2025년 2나노 수준 양산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5년 이후 파운드리 업계가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가 2나노 GAA 수율 경쟁으로 수주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인텔이 새로 도전장을 내밀고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게된다. ‘반도체 비전 2030’ 달성 여부도 이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재웅 기자 juk@